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2월 20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박종원 행정관리담당관(2110-5241), 김영만 서기관(4734), 박희범 사무관(5244)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IT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IT 산업기반 강화 필요

- 지경부 출범 4년, 실물경제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 'IT 소비강국'을 넘어 'IT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쟁력이 취약한 SW·IT 장비 등 핵심 IT 산업분야의 기반 강화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식경제부는 2.20(월) 11:30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홍석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4년, 실물경제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지식경제부 출범 이후 실물경제 전반과 중소기업 및 IT산업 등 실물경제 부문별 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실물경제 현안에 대한 장관 자문을 위해 학계, 기업계, 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회의는 홍석우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임

< 참고 : 지경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요 >

·장관 정책자문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09.12월부터 운영(현재까지 4회 개최)

·구성 : 학계, 연구소,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전문가 총 30명

□ 금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실물경제 전반 〉

◈ 우리 경제는 '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한-EU, 한-미 FTA 체결로 경제 영토 세계 3위로(전세계 GDP의 60.9%) 부상하는 한편,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불을 달성하는 등 선전해 왔음

○ 다만, 경제성장 둔화 및 내수위축,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 수출의 대기업 편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및 경제활동 인구 정체, 소득 양극화 지속 등 불안요소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

* GDP 연평균 증가율(%) : ('95~'99) △3.4 → ('00~'04) 7.9 → ('05~'10) 3.6
* 대외 무역의존도(%) : ('00) 62.4 → ('05) 64.6 → ('10) 87.9
* 지니계수 : ('03) 0.270 → ('09) 0.294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 내수 진작 및 소득양극화 개선, 여성인력 활용, R&D 효율성 제고, 서비스 교역 적자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요소투입·대기업·수출주도 성장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부문 〉

◈ 조선,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은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의 경우 정부및 기업의 투자 확대로 사상 최대 수출 및 무역흑자를 달성

* 조선 수주점유율 : ('07) 34.8% → ('11) 48.2%(세계 1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 ('07) 38.5% → ('11) 45.1%(세계 1위)
  반도체 수출액 : ('07) 390억불 → ('10) 507억불(세계 3위)

< 부품·소재 수출, 흑자 및 수출 비중 >



○ 또한 3대 17개 분야 신성장동력 발표('09.1) 이후 LED, 이차전지, 로봇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

* LED 무역수지(억불) : ('07) △1.59 → ('10) 4.14
  이차전지 수출(억불) : ('08) 34 → ('11) 53
  로봇 시장규모(조원) : ('09) 1.02 → ('10) 1.78조원(74.9% 상승)

◈ 향후 신성장동력 산업 전반에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및 융합촉진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임

〈 IT 부문 〉

◈ IT 수출은 '11년 1,570억불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주요 IT융합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IT융합도 확산추세

*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 ('07) 2.0%(세계 7위) → ('11) 24.0%(세계 1위)
* 국내 IT융합산업 생산액(조원) : ('07) 38.7 → ('11) 39.7 → ('15 예상) 75.1

○ 특히 SW, 방송장비 등 IT 분야 취약산업의 경우에도 지경부 출범후 수출과 국산화율이 큰 폭으로 증가

< SW, SoC 등 기존 취약산업의 수출 및 국산화율 >



◈ 그러나 SW, SoC, 네트워크 장비 분야는 외국기업이 여전히 국내시장을 장악

* 패키지 SW('10) : 국내시장의 64.4%를 외국기업이 차지
  임베디드 SW 국산화율('10) : 휴대폰 15%, 국방 10%, 자동차 5%, 조선 4%
  SoC 분야별 국산화율('10) : 자동차 0%, 휴대폰 19%, D-TV 34%

○ 이에 따라, HW 중심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 SW·ICT 서비스의 경우, 세계추세와 달리 HW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임

< HW, SW, ICT 서비스의 연평균 성장율, 국내외 생산규모 비중 >

구분	HW	SW	ICT 서비스
연평균성장('02~'09)	8.6%	3.8%	4.9%
국내 생산규모 비중	76%	7%	17%
세계 생산규모 비중	23%	30%	47%

◈ 과거 IT 정책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서비스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IT 강국의 이미지를 구축했으나, 핵심 IT 장비·SW·부품·소재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작용도 일부 존재(IT 소비강국 측면)

○ 현 정부 들어 IT 서비스 인프라 구축(소비측면)과 IT 산업기반 강화(생산측면)를 균형있게 추진하여 진정한 I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SW, SoC 등 취약분야 산업기반 강화, IT 융합 확산 등 IT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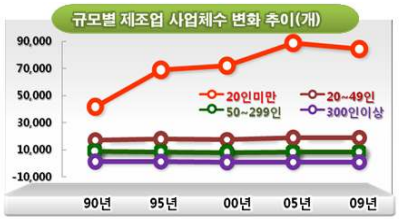
〈 중소기업 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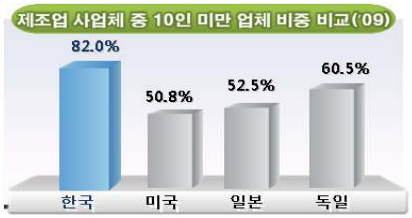
◈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

* 中企 사업체수, 비중(만개, %) : ('94) 236(99.3) → ('06) 294(99.9) → ('09) 306(99.9)
  中企 인력고용, 비중(만명, %) : ('94) 840(82.2) → ('06) 1,067(87.3) → ('09) 1,175(87.7)

○ 비제조업 영세 자영사업체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도 영세 소기업 편중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 '94~'09년간 증가한 사업체(70만개) 중 비제조 자영업이 90% 이상(64만개)
* 소득 하위 20%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수('10) : 169만명(삼성경제연, '12.2)





◈ ‘00년대에 들어 중소기업의 진입·퇴출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률에 비해 퇴출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신규기업 참여가 감소하고 퇴출되어야 할 저생산성 업체가 존속하여 경제 신진대사가 감퇴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



◈ 중소기업의 영세화 및 성장정체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제조업)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경쟁 격화, 고부가가치화 및 업종 전환에 실패한 중소 제조업체 증가, 대기업의 글로벌소싱 확대 등

○ (비제조업) 제조업의 해외 이전·구조조정에 따른 생계형 자영업 급증,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흡수력 저하, 소득 양극화에 따른 내수약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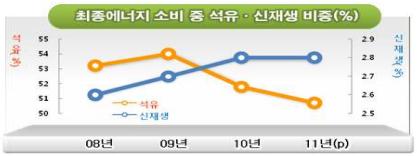
◈ 이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정책은 제조업 및 비제조업 등 업종별·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안주가 아닌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인센티브를 전환할 필요

○ 또한, 제조업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과다인력을 흡수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 자원 〉

◈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석유의존도가 감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신재생에너지 매출·수출 및 고용창출 규모(‘07 → ’10) :
(매출) 1.3조원 → 8.1조원, (수출) 7.8 → 45.8억불, (고용) 0.4 → 1.3만명

○ 석유·광물 자주개발률의 획기적인 제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 : (‘07) 4.2% → (’10) 10.8%
*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 (‘07) 18.5% → (’10) 29%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기반을 구축하고,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 도약 등의 성과 창출

◈ 향후 에너지가격 왜곡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력가격 체제를 개편하는 등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 구조를 모색하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한 중장기 에너지 믹스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지경부는 금번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계, 기업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임

※ 정책자문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대변인 서면브리핑’으로 추가배포 예정

참고1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 **일시 및 장소 :** 2. 20(월) 11:30~13:30, 팔레스호텔 1층 로얄볼룸

* 오찬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참석자**(28명)

○ 장관(주재), 기조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 강광하 서울대 교수(위원장) 등 **정책자문위원 23명**

< 참고 : 지경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요 >

·장관 정책자문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09.12월부터 운영(현재까지 4회 개최)

·**구성** : 학계, 연구소,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전문가 총 30명

·**기논의 안건**

(1차) 주력업종 및 신재생에너지 강화 계획, (2차) 선진경제 도약전략, (3차) '11년도 지식경제부 업무계획, (4차) '12년도 지경부 예산편성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

□ **회의 안건 :** 「지식경제부 4년, 실물경제 변화와 향후 과제」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30~11:35 (5')	인사 말씀	장관, 위원장
11:35~12:00 (25')	오찬 및 안건발표	기획조정실장
12:00~13:27 (87')	자유 토론	
13:27~13:30 (3')	맺음말씀	장 관

참고2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명단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강광하	서울대 교수	위원장
2	최순돈	영남대 부총장	
3	한민구	서울대 교수	
4	송하성	경기대 교수	
5	박길홍	고려대 교수	
6	정광호	서울대 교수	
7	최순자	인하대 교수	
8	홍성걸	국민대 교수	
9	이홍규	KAIST 교수	
10	박희재	서울대 교수	
11	이기태	연세대 IT융합전공 교수	
12	송정희	KT 부사장	
13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이사	
14	이장한	종근당 대표이사	
15	김희집	엑센츄어코리아 총괄대표	
16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17	황주호	에너지기술연구원장	
18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9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20	이효숙	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	
21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회장	
22	금기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상임이사	
23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